

여는 말

펜실바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의 환경공학자 마이클 맨(Michael Mann) 교수는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환경을 엄청난 속도로 환경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시도는 매우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¹⁾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달려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일주일 중 반은 미세먼지 및 공해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이고 맑고 푸른 하늘을 어쩌다 만나면 모두가 기뻐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만일 지구 전체의 인구가 100명의 한 마을이라면 0.7명은 한국인이다. 그런데 그 0.7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00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평균의 1.8명분이다. 이런 가정 하에 일본인은 100명 중 2명이다. 그 2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00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평균의 5인분이다.²⁾ 무엇보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써 아시아 뿐 아니라 지구의 공기 질을 탁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정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과 교육이 절실한 것이 우리의 형편이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오물처럼 절실하게 들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회 교육은 어떠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환경의 소중함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됨에 대한 환경교육을 별로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교회 환경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바람직한 환경교육을 위한 밑받침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I. 왜 교회에서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가

교회교육은 기독교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영으로 오셨다. 생명의 영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곧 죽어가는 삶을 다시 살리는 복음을 제시하러 오셨다는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며 이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구원,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룬다.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 우리의 교회는 성장에 집중하며 죽어가는 인간영혼을 살리고자 노력해왔다. 그 동안의 기독교교육, 교회교육은 복음 전도를 포함한 인간 구원의 문제에 국한되

1)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 핵심어: climate change. 2019년 1월 19일 10:50 접속.
2) 이케다 가요코(池田香代子) 편, 한성례 역,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환경 편』(서울: 국일미디어, 2018), 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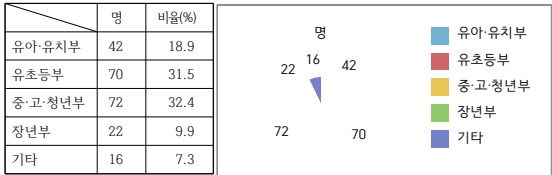
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 전도의 뜨거운 실천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류는 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의 문제는 사치로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었다. 어찌 보면 주위의 환경, 자연을 돌아보기에는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마을으로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연이 곧 나임을 알아차려 자연에게 행함’이 곧 나에게 행함이며 자연을 돌봄과 나를 돌봄이 다르지 않다³⁾는 삶의 철학은 기존의 교회교육의 개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성경공부의 모임들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주제, 자연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웬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교회 밖 시민운동에 가깝다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개인 전도와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집중해 왔다면, 그 동안 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생명’이다. 기독교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임을 언제나 다시 일깨워야 한다. 무엇보다 지구의 모든 동식물과 땅, 하늘, 바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⁴⁾ 이제는 생명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그동안 국한되어 온 인간 구원을 넘어서 생태계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심상하게 찾아오는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로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의 문제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단순히 성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피고, 되살리는 교육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변되는 적색은총이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통전적 사랑으로 대변되는 녹색은총의 합을 말하는 이른바, “적색은총+녹색은총”을 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⁵⁾ 그러므로 녹색은총에 해당하는 지구의 정원사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며 돌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환경교육은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교회 환경교육은 모든 믿는 사람, 특히 가르침의 사명을 입은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II. 지구위기시대 교회학교를 위한 설문 조사의 응답 내용 요약

다음은 지구위기 시대에 교회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⁶⁾ 응답에 관한 내용이다(설문 참여자 2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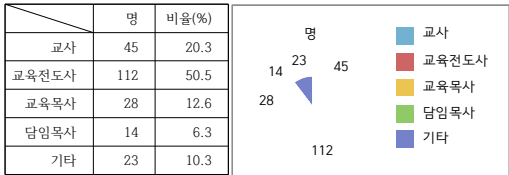
3) 유미호,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서울: 동연, 2049 개정판)의 머리말
4) 김도일, 『가장, 교회, 마을 교육공동체』(서울: 동연, 2018)의 주요 태제.
5) 김도일, 『녹색 신앙 이야기』 <기독교인상> 2012년 4월호, 유미호,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에 대한 서평.
6) 본 설문 조사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http://blog.daum.net/ecochrist>)가 2018년에 실시하였다.

1. 응답자의 말고 있는 부서는 유초등부가 31.5%, 중고청년부가 32.4%, 유아유치부가 18.9%로 전체의 82.8%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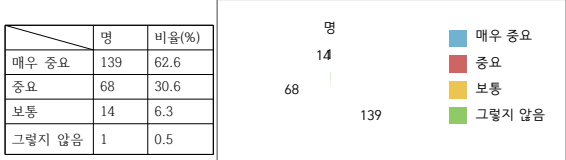
•기타: 전체 총괄 3(1.3%), 영유아~청소년 2(0.9%), 부서를 맡고 있지 않음 2(0.9%), 방송실 1(0.5%), 강리교 교육국 1(0.5%), 개척교회 통합 1(0.5%), 소속 목회자 1(0.5%), 집사 1(0.5%), 속회 인도자 1(0.5%), 사랑부 (장예우) 1(0.5%), 부목사(교구) 1(0.5%), 은퇴 선교사 1(0.5%)

2. 응답자의 직분은 교육전도사가 50.5%이고, 교사가 20.3%, 교육목사가 12.6%로 교회학 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83.4%였고, 담임목회자도 6.3%나 참여하여 응답하였다.



•기타: 간사 4(1.8%), 목사 2(0.9%), 부목사 2(0.9%), 환경부장 1(0.5%), 청년 1(0.5%), 지금은 전도사가 아님 1(0.5%), 사모 1(0.5%), 집사 1(0.5%), 전임전도사(교육부 담당) 1(0.5%), 교육부 총괄 및 청년총괄 목사 1(0.5%), 새가족부목사 1(0.5%), 가톨릭 신부 1(0.5%), 전임전도사 1(0.5%), 권사 1(0.5%), 청년부 청년, 찬양 팀 인도 1(0.5%), 담임전도사 1(0.5%), 은퇴 선교사 1(0.5%), 선교사 1(0.5%)

3. “생태환경교육이 교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62.3%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고,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93.2%로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 교육에 있어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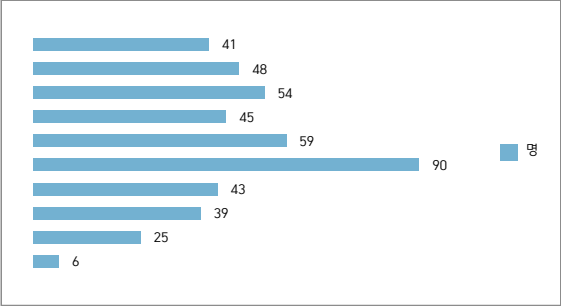
- 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주길 기다린다는 것을 상기시킴.
- 2) 환경 캠프/수련회 - 환경캠프. / 환경주일, 환경캠프 등. / 6월 환경선교 주일에 맞추어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 생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적용한 수련회를 진행해 보았음.
 - 3) 분리수거 - 분리수거 신체 활동, 작은 학본 싣기. / 분리수거 공동체 수업.
 -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음식 잔반 줄이기, 화단꾸미기. /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물 아껴 쓰기.
 - 5) 쓰레기 줄기/버리지 않기 - 유치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쓰레기 줄기, 교회 앞에 텃밭 가꾸기 등등 했어요. / 우리교회 주변 생태환경 오염도 체험 과 비닐봉지 줄기 체험. / 쓰레기 버리지 않기, 줄기 등.
 - 6) 자료 부족 - 관심은 있지만 자료부족으로... / 자료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설교를 통해서 생태신학을 이야기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땅한 것을 못 찾았고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연속성,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낌, 전문 자료가 요구 됨.
 - 7) 환경 관련 이야기 나누기 - 환경주일을 매 해지키고 수시로 환경에 대한이야기를 나눈다. / 유아들과 한 주간 지낸 이야기를 하며 환경이 변화되어 힘든 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봄. /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준 경험이 있습니다.
 - 8) 환경 관련 설교/예배 - 설교시간에 생태신학적인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분반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정도입니다. / 설교와 공과공부 활동을 통해 교육한 적이 있음. / 씨뿌림 주일 예배 때, 교육부 전체가 함께 설교를 통해 질의 응답하는 예배로 드림. / 매월 한번씩 '열방예배'라는 타이틀로 선교, 통일, 환경 등 열방을 위한 중보가 필요한 주제들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했던 때에는 환경오염 실태를 알아보고 천연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 한 달에 한 번씩 생태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환경주일에는 설교 후 공과 교육 대신 '창조세계를 위한 한 마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창조세계(자연)에게 자신의 생각과 한 마디 적고, 그것을 나무에게 걸어두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 하여 초등학생들이 창조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환경주일~ 전기 없이 예배드리기. /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 9) 텃밭 가꾸기 등 - 텃밭 가꾸기, 교회 내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 교회화분 물주기, 비누 만들기, 탐험활동. / 텃밭 일구기,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기, 숲 체험 교육 등 기존의 주일학교 이외 별도의 학교운영(방과 후 교실과 같은). 단순히 자연을 돌보거나 환경오염문제 교육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생명답게 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지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 활동 및 규칙 정해 해나감. / 창세기 1, 2 장 창조와 에덴동산을 배우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태환경을 보고 잘못된 점, 우리가 해야 할일 계획해보기. 텃밭 가꾸기, 여러 모양 여러 색깔의 나뭇잎으로 꾸미기 등. / 교회가 숲속에 있어서 무엇보다 농사지를 때 좋은 땅이나 환경이면 농사가 잘되어요.
 - 10) 환경 관련 사진 보여주기 - 교회 설교 중 관련 사항 내용이 나왔을 때, 환경파괴 사

- 5 -

- 진을 보여 주며 1회용품 사용 자체 요청. / 생태 환경 현상 사진 게시 및 사례 공유.
- 11) 기타
 -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때 최대한 직접 만들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프로그램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 꼬치를 해먹기로 하여서 각종 야채와 소시지를 준비하고 바베큐 포행이에 각자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든 닭꼬치에 대한 작품성을 부여하여 닭 꼬치의 이름과 설명, 의미부여까지 스스로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굽는 동안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고기와 야채를 균형 있게 먹게 되면 위장에서도 소화가 잘되고 영양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이렇듯 우리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조화도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아이들이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와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편식하지 않고 다 같이 먹습니다. 물론 뒷정리도 아이들이 직접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이 당연하다는, 즐거움과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이의 정성과 만든 이의 마음, 마지막으로 공급해주는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합니다.
 - 야생 동식물의 날(3월 3일),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4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등을 중심으로 해당된 날과 가까운 주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자연을 보존할 위임명령에 대한 설교와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선교지에 딸린 16 에이커의 땅에 친환경 농작물 키우기, 아껴쓰기, 쓰레기 재활용, 자연 관찰학습,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청결의 날 등을 정하여 교회 주변의 청소 등, 일상생활에 적용할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자연학교를 만들어 자연과 문명의 충돌로 인한 공해와 오염을 최소화 할 의식을 갖게 한다.
 -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텀블러 사용을 적극추진 중입니다(아직 활발하지는 못함), 생태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고, 기도팀(살림)안에서 여성 생리대를 면생리대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면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간식 인스턴트를 가능한 배제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2)
 - 달란트시장에서 꽃을 팔았습니다. 자연을 해치기보다 자연을 위한 물건을 사라는 미션을 줌.
 - 온난화 관련하여 활동을 진행.
 - 총회 공과(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지구사랑 등)가 필요함.
 - 환경 세미나를 열고 환경주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숲 체험.
 - 추수감사주일, 다양한 나뭇잎으로 말씀 컬러링하기 및 전시회.
 - 결국 생명 경시에 대한 보편화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배려가 아닌, 모든 생태환경을 인간중심에 맞추고자 하는 구조라면 희망적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6 -

7. 교회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생태환경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65.2%). 그 다음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교사의 부재'가 42.8%, 생태신학(창조신앙 관련 성서말씀)에 대한 교양 부족(39.1%)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 혹은 지식 부족, 교회지도자들의 관심 부족 혹은 반대, 환경 주일 등 기독교적 교육 절기 및 내용이 있는 것 알지 못함,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등이 고르게 지적되었다.



*기타: 환경주일로 지켜본 적이 없어 교회, 교회학교 문화 변화의 어려움 1(0.7%),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함 1(0.7%), 시간부족, 시간은 한정되어서 말씀을 알려줄 시간도 부족함, 생태학적 신학을 알려주기도 너무 벅하다. 1(0.7%), 직접 체험하기론 미래세대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로 인해 교회 차원에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 비중을 덜 두는 것 같음 1(0.7%), 교회에서 정해진 공과 교재(커리큘럼) 진도를 따라야 합니다. 1(0.7%), 내년부터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0.7%)

8. 앞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교회 환경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씩 선택해보게 하였더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환경주일 등 생태적 예배를 드리는 것'(51%)에 이어, 교회 안과 밖에 창조의 정원을 만들어 가꾸는 것(37.8%)으로 나왔다. 교회생활의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젖어들게 하고자 하는 교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이론교육과, 재생지로 된 주보와 포장 없는 선물 그리고 일회용품 안 쓰기 등 교육활동 중의 자연스러운 환경교육, 예배 및 교육공간을 생태적으로 꾸미는 것 모두 30% 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녹색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자연 체험활동', '절기에 따른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교육', '신음하는 피조세계 현장 방문기도' 등도 다소 적은 듯 보이나 고른 관심을 표시해 주었다.

	명	비율(%)
환경주일 등 생태적 예배 드리기 (설교 포함)	113	50.9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공부 및 묵상	50	22.5
예배 및 교육 공간을 생태적으로 꾸미기	68	30.6
환경문제 혹은 창조보전에 대한 이론교육(일회성 특강, 환경학교 등)	74	33.3
창조의 정원 (동산, 티발, 숲) 만들고 가꾸기 (교회 건물 안팎 및 마을 내)	84	37.8
지역을 소재로 무언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활동 (낙엽그림책 만들기, 자연의 것 소재로 악기 연주하기 등)	48	21.6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고려하는 의식주 중심의 생활체험 (교회 텃밭 일구기, 농촌체험활동, 생활재비누, 치약 등만들기 등)	61	27.5
자연과 환경에 대해 학습하는 활동(마을 생태지도제작, 교회마당 식물도감만들기 등)	30	13.5
주변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자연환경 체험 및 탐사활동(숲, 갯벌, 칠채, 습지 등)	62	27.9
자연환경 안에서 흥미로운 게임이나 그룹별 놀이 활동	52	23.4
교육활동에서의 자연스러운 환경교육 (재생활자로 주보를 만들기, 행사 상품에 포장지를 쓰지 않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가공식품 간식은 가급적 주지 않기)	73	32.9
절기에 따른 생태적 살으로의 전한 교육	40	18.0
신용하는 피조세계 원장 방문 기도	34	15.3
기타	3	1.4

9. 위의 교육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어떤가?

	명	비율(%)
생태신학 및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54	24.3
교회 환경교육 진행 가능한 역량을 갖춘 리더십 개발	20	9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 시 컨설팅	9	4.1
계획에 따른 추진예산	11	5
생태 환경교육에 관한 기법 전수	10	4.5
교회 환경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안내	63	28.4
담당목회자의 지지와 격려 (교회지도자 포함)	16	7.2
생태환경교육 사례 공유 및 관련 교회(기관) 네트워킹	37	16.7
기타	2	0.9



*기타: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고 실천표도 작성해볼 수 있도록 독려 1(0.5%), 복수로 답하기가 안되네요... 자료(1), 리더십 개발(2), 네트워킹(정보공유, 8) 1(0.5%)

10. 앞으로 기독교환경교육 및 교육센터 설립의 소식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인적사항을 적어주십시오.

III. 연구 분석을 위한 설문자/교회의 배경 질문

응답자의 교회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명	비율(%)		명	비율(%)
서울시	62	27.9	충청북도	3	1.4
경기도	52	23.4	전라북도	2	0.9
대전시	24	10.8	세종시	2	0.9
경상남도	23	10.4	경상북도	2	0.9
부산시	12	5.4	제주도	1	0.5
충청남도	10	4.5	인도	1	0.5
광주시	7	3.2	서아프리카 N국	1	0.5
전라남도	5	2.3	일본	1	0.5
인천시	4	1.8	호주	1	0.5
울산시	4	1.8	응답안함	2	0.9
강원도	3	1.4			

응답자의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수는? 귀 교회학교(교회)가 속한 교단은?

	명	비율(%)		명	비율(%)
100명 미만	106	47.7	예장통합	110	49.5
100~200미만	34	15.3	예장합동	6	2.7
200~500미만	34	15.3	예장고신	1	0.5
500~1000미만	19	8.6	예장합신	1	0.5
1000 이상	25	11.3	기장	12	5.4
모름	4	1.8	감리교	78	35.1
			백석	1	0.5
			예성	5	2.3
			기성	2	0.9
			카이갑	2	0.9
			순복음	2	0.9
			가톨릭	1	0.5
			미응답	1	0.5

본 설문조사는 위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여러 교단에 속한 교회와 일본, 아프리카, 호주, 인도 등에 산재한 이민교회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표본 집단은 크지 않지만 교회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골고루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환경교육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생태에 대한 성경적 이해나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지 또한 다른 것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경교육을 실시했던 이들 가운데는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식의 부족과 더불어 교육 자료와 역량 있는 교사의 부재를 어려움을 드러냈다. 적은 수의 교회였지만,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환경교육이 교회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을 녹색으로 눈으로 새로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재와 더불어 교육사역자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환경교육콘텐츠와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IV. 교회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핵심 역량 확충을 위한 제언

위에서 진행한 기독교환경교육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현재 환경교육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40%를 조금 상회하였다. 이것은 인식에 비하여 실제적 교육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 및 교육과정, 교재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환경교육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나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환경교육을 위한 구체적 교육방법,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 만들기, 교육자료 구비, 전문적 세미나의 정기적 실시 등을 통해 교회의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별, 주제별, 구체적이며 흥미로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다. 즉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실시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어떤 영역의 교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설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교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교회의 환경교육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이나 예산 배정과 같은 것은 교육부에 한정되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목회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5. 기독교환경교육의 영역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환경교육뿐 아니라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접근하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제안이다.

6. 환경주일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날(3월 3일),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4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등을 중심으로 해당된 날과 가까운 주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자연을 보존할 위임 명령에 대한 설교와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아주 중요한 환경교육이며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나가는 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교회 환경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환경교육의 핵심역량은 환경 감수성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공동체문화 형성,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환경정보와 활용, 성찰과 통찰 등이며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 환경쟁점과 사례,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환경 관련한 생활주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등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공감하기,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하기, 상상하기, 시각화하기, 융합하기, 변화를 촉진하여 관점 바꾸기, 참여하기, 모색하기, 관련 짓기, 설명하기, 판단하기, 정보수집, 분석하기, 관련하기, 판단하기, 활용하기, 성찰하기 등의 교수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⁷⁾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환경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 안에서 환경교육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생명신학 및 환경신학에 기반 한 교수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가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과 창조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신학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교수방법 함양 등의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그런 점에서 교육자나 학생들 모두가 일상을 생명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에도 ‘좋다’ 하며 감탄

7) 최기호, 박경미, “공동체 문화발전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 생태시민성 증진을 위한 융합예술 환경수업 연구”, 『조형교육』 제 66권, 한국조형교육학회, 2018. 333.

할 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이 더불어 지어진 여러 생명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면 환경실천은 자연스럽게 행해질 것이다. 가능하다면 매달 제시되는 ‘지구주일 묵상’이나 ‘살림의 기억’쓰기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며, 그에 대한 기억을 글로 표현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의 교육환경이 생태적인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초록이 자라나는 생명의 성장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적인 만남과 아름다운 자연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사각의 콘크리트에 익숙해진 다음세대와 현대인들에게 가드닝(gardening)의 공간으로서 교회 정원(숲)을 만들어 교회교육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면 중세시대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자 하였던 성당의 건축과 같이 기후변화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생명과 생태의 공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천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교회학교 차원에서 녹색의 교회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생명보존 지침들을 정하여 지켜가도 좋을 것이다. ○교회학교 녹색수칙⁸⁾이나 녹색다짐⁹⁾, 녹색의 상징물¹⁰⁾이나, 매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하는 녹색교회들의 기준¹¹⁾을 참고하여 녹색신앙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설문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교회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배에

8) 녹색기독인십계명 - 일화용품들 쓰지 맙시다/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삼갑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중고용품/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 합시다/ 침묵은 하나님도 위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팔지 맙시다. 소비광고에 한눈을/ 구합시다. 착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9) 살림씨앗들의 다짐

1) 우리는 창조보전을 위한 자연과 더불어 풍성하면서도 단순 소박한 삶을 실천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과 지구를 지키고 돌봅니다.

3)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 살리는 성장을 합니다.

4) 우리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 충성을 둔 먹거리, 에너지, 자원순환에 힘씁니다.

5) 우리는 녹색신앙이 삶과 교회 안에 뿌리내리도록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6)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 받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7) 우리는 모든 생명이 창조주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며 피조물과 함께하는 기도에 힘씁니다.

10) 살림씨앗들의 일곱 가지 물건 - 자전거, 손수건, 머그컵(스텐 컵, 텀블러), 부채, 장바구니, 상자텃밭, 초, 살림씨앗들의 일곱 가지 습관 -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속도를 느낀다. 공장 제품이 아닌 손으로 만든 것을 쓴다. 일주일에 한 번 전기를 끄고 옷불을 켜다. 손수 만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다.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일화용 컵 대신 다화용 컵을 쓴다.

11) 녹색교회 열다짐

1)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한다.

3) 우리는 창조세계의 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4)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환경적으로 양육한다.

5) 우리는 생태환경을 살리는 교회 조직을 운영한다.

6) 우리는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7) 우리는 생명방상을 차린다.

8) 우리는 교회를 푸르게 가꾼다.

9) 우리는 초록가게를 운영한다.

10) 우리는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힘을 모은다.

환경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다. 환경주일 등 생태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되, 교회력(대림절, 사순절, 기쁨의 50일)에 따른 말씀묵상과 실천프로그램뿐 아니라 매달 한 번씩 환경력에 따른 지구주일을 정하여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세계를 묵상하게 하면 함께 울고 웃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록빛 삶이 가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 교회와 마을이 연대하는 것이다.

마을 환경선교의 힘은 사람에게 있으니 마을 환경선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와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작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로 시작하면 좋다. 마을의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마을자원을 조사하면서 마을의 환경의제를 찾아 함께 해결해가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봐도 좋다. '생명밥상 차려 나누기, 탄소 줄이기 운동, 마을 인근의 정원 숲 조성 및 돌보기, 주민을 위한 생태감수성 교육, 플라스틱 프리 등 쓰레기제로 실천, 아나바다장터 등 녹색가게 운영, 플라스틱프리 카페 운영, 마을 공터에 텃밭 가꾸기, 농촌교회와 연대한 농산물 직거래, 절수-절전 및 일회용품 사용절제 운동' 등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힘을 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여섯째,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구를 살리고 다음세대까지 초록빛 온촌이 아름답게 전하여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환경단체와의 연대, 다양한 연구소 및 NGO, 학교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때에 따라서는 교회 내 생태환경에 깨어난 녹색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되, 자발적이면서도 자율적인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한다면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환경교육은 교회 안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에서의 생명실천, 환경보호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참여교육, 부모를 위한 안내문, 다양한 생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인식이 환경감수성에 민감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전문가 수잔 토쓰(Susan Toth)가 만든 "환경교육이 가져다주는 10가지 유익"이라는 글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 첫째, 삶의 전반에 대한 상상력과 열정이 증대된다. 환경문제가 교육과정에도 포함될 때 학생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고하고 열심을 낸다.
- 둘째, 학습이 교실을 초월한다. 환경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 사회적, 생태, 경제, 문화, 정치 제반의 문제와 자신의 공부를 연결시키게 된다.
- 셋째,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 증대된다. 환경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복잡한 환경문제들이 왜 발생하며 거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을 만들

12) 조은하, "다음세대와 함께 누리는 초록빛 온촌," 『교회성장』, 2018년 8월호.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넷째, 학생들의 인내와 이해가 지지를 받는다. 환경교육을 통해 다양한 이슈가 나오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관용(Tolerance)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다섯째, 간학문적 학습을 위한 탁월한 배경지식을 얻게 되고 과학, 수학, 언어학, 역사 등과 같은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여섯째, 생명공포증(biophobia)과 자연결핍장애(nature deficit disorder)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자연에 노출됨으로써 환경을 민감하게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한마디로 "자연결핍장애와 싸울 전투력을 배양하게 된다." 매우 즐겁게 말이다.

일곱째,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정려된다. 환경교육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비만증, 주의집중결핍장애, 우울증과 같은 건강관련 이슈들에 눈을 뜨게 해준다. 균형잡힌 식단이 정려되고 자연에서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여덟째, 공동체가 강하게 결속된다. 환경교육은 삶의 자리에 감각과 공동체에서의 참여와 관여를 통한 연결을 촉진시킨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하여 배우고 개선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여게 되면 커뮤니티(공동체) 내의 전문가, 기부자, 재능기부 및 봉사자,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진 각종 단체에 연락을 하고 연결을 시도하게 되어 결국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홉째,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교육은 사람들이 취하는 결정과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복잡한 환경 문제를 잘 다룰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점차 건강하고 유지 가능한 환경을 가꿀 조치를 지금 여기에서 취하게 된다.

열 번째, 교사와 학생이 같이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환경교육은 리더십, 시민정신, 적극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며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확신을 갖게 되고 학교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얻게 된다. 또한 교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건설한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된다.¹³⁾

연구자 : 김도일(장로회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조은하(목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협력자 :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13) <https://www.plt.org/educator-tips/top-ten-benefits-environmental-education/> 핵심어: eco education(환경교육). 2019년 1월 19일 13:00 접속.